

○ 해외동향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

우리나라와 칠레 양국은 현재 관세일반을 포함한 시장접근분야 등 주요 분야별로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에 있어서 관세나 물량제한과 기존교역장벽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칠레 주요수출품목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대중남미 수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티아고 한국무역관에서는 최근 현지 주재 지·상사 및 품목별 주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대칠레 21개 주요수출품목에 대한 '한·칠레 FTA 이후 경쟁력 변화동향 및 영향'을 조사해 이에 대한 주요내용 및 품목별 바이어리스트를 발췌, 게재한다.

< 조사내용 요약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칠레시장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품목은 일본과 경쟁중인 자동차를 비롯해 칠레산과 경쟁중인 세탁기, 냉장고 등 백색가전,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칠레산과 경쟁중인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최근에 시장점유율 1위로 부상한 엘리베이터, 석유화학제품, 건전지, PVC 바닥재, 직물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압기, 전기통신 케이블은 국제입찰방식 구매패턴상, VCR은 공급구조상, 전자레인지 등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 등으로 약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중인 세탁기, 전자레인지,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엘리베이터, 자동차배터리, 직물, PVC 바닥재 등은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현재 시장진출이 초기단계인 휴대폰, 전기통신케이블, 변압기, 건전지 등의 제품이 FTA 이후에 본격적으로 칠레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칠레 수입 관련업체 특히, 수입선이 유럽국가들인 칠레 바이어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칠레 시장의 경우 한국상품의 이미지가 높아 다른 어떤 국가에서 보다 진출이 활발하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유럽제품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나타나 우리 관련업계는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 국제입찰참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FTA 이후 주요 품목별 경쟁변화 동향 및 영향

품 목	현 경쟁상황	FTA 이후 경쟁변화동향 및 영향	혜택정도		
			상	중	하
전기통신케이블	스페인, 미국이 선두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이 진출확대 모색중	국제입찰방식 구매로 진출에 한계가 있으나 멕시코와는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		○	
변압기	유럽, 브라질산과 경쟁	유럽, 브라질산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로 시장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나 국제입찰방식 구매가 진출의 걸림돌		○	

1. 전기통신케이블

전기통신케이블의 경우 칠레의 전기 및 통신회사들이 턴키베이스(예를들면 일정구간 송전, 통신망 설치공사)로 국제입찰을 발주하게 되며 여기에 칠레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스페인, 미국, 칠레업체들이 원청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칠레에 전기통신케이블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입찰에 참여해 낙찰받거나 이러한 턴키베이스 원청업체들에게 필요한 수량을 납품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후자가 현실적인 방안이다.

원청기업인 미국·스페인회사들은 주로 미국·스페인산을 사용하고 있어 침투하기가 어

려운 상황이며 칠레기업들은 원산지를 가리지 않고 품질 좋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다.

전기선의 경우 최근 칠레의 수요가 동선에서 저렴한 알루미늄선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멕시코, 브라질 등과 경쟁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과는 원천적으로 관세면에서 불리해 현재 고전중이다.

광케이블의 경우도 역시 전통적으로 미국, 스페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한국은 멕시코산과 경쟁중이나 역시 관세면에서의 불리한 위치에 있어 고전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면에서 멕시코와 동등해질 경우 시장진출이 유망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고무절연전선 수입실적(HS 8544 5910)

(단위 : US\$천)

국 별	1998	'99. 1~7
스 페 인	4,752	1,561
미 국	2,600	1,063
독 일	1,638	354
멕 시 코	1,372	766
페 루	1,058	-
아르헨티나	963	857
한 국	219	419
총 계	16,550	6,604

● 동축케이블 수입실적(HS 8544 2020)

(단위 : US\$천)

국 별	1998	'99. 1~7
미 국	4,082	1,801
프 랑 스	2,324	11
캐 나 다	1,886	1,835
중 국	340	65
브 라 질	226	288
한 국	4	35
총 계	10,355	4,540

● 광케이블 수입실적(HS 8544 7000)

(단위 : US\$천)

국 별	1998	'99. 1~7
미 국	4,542	1,218
스 페 인	4,111	768
멕 시 코	2,658	127
이스라엘	807	-
브 라 질	790	-
한 국	376	665
총 계	15,869	4,135

※ 수입상 명단

- Vtr Cable Express Chile S.A.
Teatinos 950, Piso 12, Santiago, Chile
Tel : (56-2)310-1000
Fax : (56-2)310-1560
Contact : Mr. Blas Tomic/General Manager
E-Mail : None
Bz Type : Telecommunications
- Electronica Del Pacifico Finisterrae Ltda.
Julio Prado 2118, Uoa, Santiago, Chile
Tel : (56-2)225-0356
Fax : (56-2)205-0191
Contact : Mr. Guillermo Diaz-Vas O./General Manager
E-Mail : Elpacifi@reuna.cl
Bz Type : Import And Representations
- Electronica Sudamericana Ltda.
Lira 230, Santiago, Chile
Tel : (56-2)634-4008
Fax : (56-2)634-5912
Contact : Mr. Ivan Mahana/Finance And Import Manager
E-Mail : Sudamer@entelchile.net
Bz Type : Import, Sal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Goods

- Bellsouth Comunicaciones S.A.
Av. El Bosque Norte 0134, Las
Condes, Santiago, Chile
Tel : (56-2)339-5000
Fax : (56-2)339-5353
Contact : Mr. Domingo Cruzat
A./General Manager
E-Mail : Soporte@bellsouth.cl
Bz Type : Telecommunications
- Interexport S.A.-Mega Cable S.A.-
San Ignacio 1034, Santiago, Chile
Tel : (56-2)695-6020
Fax : (56-2)695-6030
Contact : Mr. Jorge Winter/General
Manager
E-Mail : None
Bz Type : Representaions
- Raychem Industrial Y Comercial Ltd.
Av. Manuel Montt 1693, Santiago,
Chile
Tel : (56-2)209-8211
Fax : (56-2)223-1477
Contact : Mr. Ignacio Troncoso U./
General Manager
E-Mail : None
Bz Type : Importer And Exporter
- Startel Telefonica Movil (Ctc
Comunicaciones Moviles S.A.)
Miraflores 130, Psio 12, Santiago,
Chile
Tel : (56-2)661-6000
Fax : (56-2)661-7299
Contact : Mr. Ismael Vasquez
R./General Manager
E-Mail : None
Bz Type : Telecommunications
- Sociedad Contractual Minera El Abra
General Velasquez 890, Piso 7,
Antofagasta, Chile
Tel : (56-55)35-2000
Fax : (56-55)35-2999
Contact : Mr. Daniel Torreblanca/
Procurement Manager
E-Mail : Dtorreblanca@cyprus.com
Bz Type : Mining Company
- Entel S.A.
Av. Andres Bello 2687, Piso 14,
Santiago, Chile
Tel : (56-2)360-0123
Fax : (56-2)360-2510
Contact : Mr. Richard Buchi Buck/
General Manager
Mr. Mirko Lolic/Products
And Equipment Manager
E-Mail : www.entelchile.cl
Bz Type : Telecommunications

2. 변압기

칠레 전기회사들이 국제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칠레 변압기 시장의 경우 국제입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년 시장판도가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회사들이 칠레 변압기 시장을 분할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진출이 미미하다가 '98년에 현대중공업에서 최초로 칠레전기회사에 초고압변압기(용량 50~133MVA) 10대를 납품에 성공하면서 칠레 변압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 수입실적(HS 8504 2300)

(단위 : US\$cs)

국 별	1998	'99. 1~7
한 국	4,520	869
호 주	4,484	-
캐 나 다	3,315	-
프 랑 스	3,030	-
포르투갈	2,990	462
이탈리아	2,964	1,580
스 페 인	1,760	-
일 본	1,530	-
스 위 스	-	4,705
브 라 질	-	1,936
총 계	28,021	10,041

최근에는 환율폭등에 힘입은 브라질이 ABB, 지멘스, 도시바 등 다국적기업들의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위주로 칠레 변압기 시장 진출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칠레에 수출할 경우 3.5%의 수입관세만을 적용받고 있어 10%를 적용받는 한국의 경우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오히려 우리가 관세면에서 유리해지는 경우 우리가 변압기 시장에서 선두권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수입상 명단

- Corporacion Nacional Del Cobre De Chile Codelco
Huerfanos 1270, Santiago, Chile
Tel : (56-2)690-3232
Fax : (56-2)690-3833
Contact : Mr. Esteban Pardo/Vice-President Of Procurement & Supplies
E-Mail : Epardov@stgo.codelco.cl
Bz Type : Copper Mine
- Compaia General De Electricidad Industrial
Teatinos 280, Santiago, Chile
Tel : (56-2)680-7000
Fax : (56-2)680-7484

- Contact : Messrs. Sub-Gerencia De
Abastecimiento
E-Mail : Aarce@cge.cl
Bz Type : Electric Company
- Transformadores Camilo Herrera
Ltda.
Guillermo Mann 1751, Uoa, Santiago,
Chile
Tel : (56-2)238-6571
Fax : (56-2)238-6106
Contact : Mr. Camilo Herrera/
General Manager
E-Mail : Ch@transformadores.net
Bz Type : Manufacturer Importer
And Distributor Of
Transformer
 - Diprel S.A.
Bulnes 278, Santiago, Chile
Tel : (56-2)688-4500
Fax : (56-2)681-2219
Contact : Mr. Antonio Gutierrez/
Purchase Manager
E-Mail : None
Bz Type : Importer, Exporter And
Distributor Of Electric
Products
 - Chilquinta Energia S.A.
- General Cruz 222, Valparaiso, Chile
Tel : (56-32)25-0081
Fax : (56-32)22-1245
Contact : Mr. Sergio De Paoli/
General Manager
E-Mail : Sdepaoli@chilquinta.cl
Bz Type : Sale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Energy
- H. Briones Equipos Electricos S.A.
Las Americas 585, Santiago, Chile
Tel : (56-2)557-9357
Fax : (56-2)557-9828
Contact : Mr. Juan Enrique Gaete/
General Manager
E-Mail : Jegaete@hbee.cl
Bz Type : Trade And Industry
 - Gener S.A.
Miraflores 222, Piso 4, Santiago,
Chile
Tel : (56-2)686-8000
Fax : (56-2)686-8427
Contact : Mr. Juan Carlos Olmedo/
Commercial Manager
E-Mail : Jcolmedo@gener.cl
Bz Type : Sale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Energy
(제공 : Santiago 한국무역관)

베트남, 외국인 기업완전소유 인정

베트남은 일부 산업분야의 합작투자회사들을 완전 외국인 소유기업으로 전환토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투자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지난 8월 섬유와 의류, 세제, 화장품, 의약품 공급, 자동차 조립, 호텔, 사무실빌딩, 시멘트, 공단하부구조 개발 등 분야의 적자 합작기업에 대해 그 같은 전환을 허용해 줄 것을 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관리는 최우선 고려 대상은 계속 결손을 낸 채 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 외국 파트너와 불화를 빚고 있는 합작업체라고 말하고 이 건의안이 언제 승인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이들 적자기업을 100% 외국인 소유회사로 전환시키면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노동력을 공급하고 적자를 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이익을 내는 합작회사들도 한 파트너가 자본 철수를 제안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美·유럽, 마이크로 가스터빈 개발 박차

미국과 유럽에서는 초소형 가스터빈(마이크로 가스터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크로 가스터빈은 100킬로와트 이하의 전력을 자가 발전하는, 마치 작은 발전소와 같은 것이다.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의 작은 호텔과 사무실빌딩, 음식점 등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다. 기존 전력요금보다도 저렴한 경우가 많다.

전력요금 저렴화 가능

미국의 얼라이드 시그널산하의 파워시스템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과 유럽의 4개사는 실용기의 개발에 열심이다. 일본의 메이커들도 참여, 마이크로 가스터빈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가스터빈은 터빈이라고 불리는 날개 바퀴를 고온·고압가스 흐름으로 회전시켜 발전하는 장치이다. 보통의 발전소는 증기터빈이나 증기터빈과 가스터빈을 합친 복합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종래의 가스터빈은 200~300메가와트 출력의 초대형 발전용과 수십 메가와트

의 소형 항공기용, 비상용 전원 등이 주용도로, 모두가 특허용도를 위한 주문생산으로 만든 고성능 하이테크장치였다. 생산코스트가 높고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비해 마이크로 가스터빈은 양산설계에 의해 설비코스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가스터빈을 사용한 초소형 발전장치를 슈퍼마켓과 대형 편의점, 병원, 호텔, 주택단지 등의 소규모 시설을 위한 분산전원으로 보급시키려는 계획이 있다. 이미 시카고시의 오헤어 국제공항 근처의 맥도널드점이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발전장치를 1대(얼라이드 시그널 파워시스템제) 설치, 성능을 평가중이다.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가장 큰 특징은 장치가격이 발전능력 1킬로와트 당 300~450달러 정도로 저렴하다는 점이다.

마이크로 가스터빈이 미국에서 주목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전력의 '질'이 좋지 않는 지역이 많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상용 주파수가 변동하거나 노이즈가 비교적 많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정전되는 사태도 발생한다. 이런 정전에 따른 위험대비 차원에서 마이크로 가스터빈발전장치가 기대받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시험평가가 미국에서의 발전코스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도 미국기업이 전력사정이 나쁜 아시아에 진출할 경우에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가스터빈발전장치의 개발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 가스터빈개발의 선두 주자는 캡스톤 터빈(캘리포니아주)이다. 컴팩 컴퓨터의 벤 로젠 회장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간부 등이 마이크로 가스터빈을 사용한 초소형 발전장치 시장이 급성장할 것을 예상, 개발자금을 지원해 주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영국의 호먼 파워시스템과 미국의 NREC도 마이크로 가스터빈을 이용한 초소형 발전장치의 개발에 적극적인 기업들이다.

日업체 사업참가 잇따라

일본에서는 가스터빈의 배기가스 클린도가 높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수한 연소기술을 갖춤으로서 NOx(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10~25ppm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점이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98년에 소형 가스터빈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 현재 자동차탑재용으로 축적한 기술로 50킬로와트와 300킬로와트 2종류의 마이크로 가스터빈을 개발중이다. 그 외에 항공, 중공업, 기계분야에서의 사업참가와 일본기계학회가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등 마이크로 가스터빈과 열교환기를 사업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만, 북부지역 전력난 거의 해소

대만전력(台電)의 송전케이블 긴급 복구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전력공급으로 고통받아 왔던 북부지역에 대한 공업용 전력공급이 지난 4일부터 거의 정상화되고 있다.

台電은 中港-峨眉라인을 임시로 연결하는 송전케이블 복구 작업을 마침으로서 80만kW를 북부지역으로 송전할 수 있게 됐고 50만kW를 추가 송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제한적 전력공급으로 심각한 생산차질을 빚던 업계의 고충이 상당폭 해소될 전망이다.

經濟部는 공장의 조속한 정상 가동을 위해 특수고압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공업 업체들에게 전력을 우선 공급하기로 조치하는 한편 날씨가 선선해지자 그동안 실시하던 시차제 전력공급을 차차 정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민간용 전력공급 역시 빠르면 10월 10일이면 정상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台電은 4일 북부지역의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인해 전력소비가 며칠전보다 약 280만kW가 감소된 결과, 지금까지 지역별로 교대로 송전하던 방식을 당초 예상시기보다 앞당겨 정상 공급하기로 밝혔다.

한편 台中の 화력발전소 7호기 역시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북부지역에 50만kW를 추가로 송전할 수 있게 돼 북부지역으로 공급하는 총전력량은 130만kW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台電은 이번에 임시로 中港-峨眉지역을 이은 선로는 중간에 中寮 지방을 거쳐야 하는데, 中寮지방의 지진피해가 심각해 中寮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선로를 연결, 台中 화력발전소 잉여전력의 북부지역 송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직 복구작업이 끝나지 않은 嘉民-峨眉선은 10월 10일에는 복구가 가능하리라 예상되며 이 경우 남부지역 잉여전력의 북부지역 추가 송전이 가능하게 돼 북부지역의 민간용 전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전량과 안전성에 있어 이번에 임시 설치된 두 개의 선로는 기존 정상 송전케이블보다 수준이 떨어져 전력공급이 완전히 정상 회복되기까지에는 南北第3路 초고압 송전선로가 완공되기까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긴급명령 범위안에 송전문제가 포함돼 당초 2000년 5월 완공 예정이던 中港-峨眉라인을

2000년 2월로 앞당겨 완공시키기로 결정, 가장 중요한 구간인 이 송전선로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원활한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돼 북부지역의 전력문제는 이를 계기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또한 용수공급문제에 있어 王志剛 經濟部長은 대만성 상수도(自來水)公司在 현재 51개 수리복구단을 현지로 파견해 수리복구작업에

참여, 늦어도 10월 15일 이전에는 완전 복구가 가능하게 돼 재해지역에 대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일반 민생용품의 가격폭등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시멘트, 자갈, 모래, 철강, 건설자재 등 재건사업에 필요한 품목의 수요가 향후 2, 3개월 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용접산업 수요 급속 팽창

인도 용접산업이 급속 팽창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조선, 철강, 철도, 국방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많았으나 최근 자동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관련분야 용접기계 및 용접봉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 자동차산업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힌두스탄의 엠바사더, 마루티스즈끼의 마루티(800cc)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용접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립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들어 대우, 현대, 포드, 도요타, 지엠, 미쓰비시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이 대거 진출하면서 용접산업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고급차종에 쓰이는 저항용접 등 고급 용접기계 및 용접로봇, 특수급속용접 등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용접업계는 주요 5개사를 제외한 300여개의 용접관련 제조업체가 모두 영

세규모로 관련산업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자료에 인용되는 내용을 보면 인도 용접산업은 금액면에서 2억달러의 시장으로 '98년에 용접 소모품이 18만t 사용되었다. 이중 마일드스틸의 비중은 75% 정도를 차지한다.

수요량을 보면 아직은 수동으로 작업하는 MMAW(Manual Metal Arc Welding)가 연간 15만t, 반자동 이산화탄소 용접으로 알려진 Mig-Mag이 1만2천t, 완전자동 SAW(Submerged Arc Welding)가 9천t 정도인데 향후 몇 년간은 Mig-Mag분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마일드 스틸은 인도산이 가격이 싸서 외국 제품 진출이 적으나 스테인리스스틸부터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인도의 용접기계분야 주요 업체는 Advani Oerlikon, Esab India, Miraj Electrical, Kanubhai Electrical 등이 있으며 영세규모

기업을 합하면 30개사 정도가 용접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 업체별 점유율

업체명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Advani-Oerlikon	27.93	27.12	23.95	25.10	24.45	22.34
Esab India	16.45	18.78	18.60	16.70	16.21	17.00
HEG	17.95	17.26	18.63	17.85	16.45	16.46
Graphite India	16.18	15.18	16.00	15.06	16.13	16.31
Carbon Everflow	7.39	6.72	8.69	8.26	7.94	8.70
Ewac Alloy	4.28	4.70	4.50	4.80	4.51	4.30
Indo Matsushita Carbon Co.	2.59	2.23	2.26	2.53	2.96	3.38
Modi Industries	1.80	2.04	1.89	2.10	2.28	2.45
Ahura Welding Electrode Mfrs	1.49	1.90	1.95	2.27	2.22	2.00
D&H Welding Electrodes(India)	-	-	0.52	0.76	0.81	0.76

對칠레 케이블수출 원청社 납품방식 현실적

우리 업체가 칠레에 전기통신케이블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거나 턴키 베이스 원청 업체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후자가 현실적이다. 현재 칠레는 전기통신케이블의 경우 현지 전기·통신회사들이 턴키 베이스(이를테면 일정구간 송전, 통신망 설치공사)로 국제입찰을 발주하게 되며 스페인, 미국,

칠레 업체들이 원청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청 기업인 미국, 스페인 업체들은 주로 미국, 스페인산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 업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칠레 기업들은 원산지를 가리지 않고 품질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전기선의 경우 최근 칠레의 수요가 동선에서 저렴한 알루미늄선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한국은 멕시코, 브라질 등과 경쟁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과는 원천적으로 과세 면에서 불리해 현재 고전 중이다.

광케이블의 경우도 역시 전통적으로 미국, 스페인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한국은 멕시코산과 경쟁중이나 역시 관세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체결되고 관세면에서 멕시코와 동등해질 경우 시장진출이 유망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수입상 명단

- Entel S.A (Telecommunications)
 - 전화 : 56-2-360-0123
 - 팩스 : 56-2-360-2510
 - 전자우편 : www.entelchile.cl
 - 담당 : Mr. Richard Buchi Buck
(General Manager),
Mr. Mirko Lolic (Product and Equipment Manager)
- Sociedad Contracual Minera El Abra (Mining Comany)
 - 전화 : 56-55-35-2000
 - 팩스 : 56-55-35-2999
 - 전자우편 : Dtorreblanca@cyprus.com
 - 담당 : Mr. Daniel Torreboanca
(Procurement manager)
- Starel Telefonica Movil (Ctc Comunicaciones Moviles S.A.)
 - 전화 : 56-2-661-6000
 - 팩스 : 56-2-661-7299
 - 담당 : Mr. Ismael Vasquez R.
(General Manager)
- Raychem Industrial Y Commercial Ltd (Importer and Exporter)
 - 전화 : 56-2-209-8211
 - 팩스 : 56-2-233-1477
 - 담당 : Mr. Ignacio Troncoso
(General Manager)